



한·미 “北 미사일 외교해결”



北 미사일 발사

▶관련기사 3·4·11면

盧-부시 전화통화 “심각한 도발” 인식 中·러 반대 ‘안보리 결의안’ 채택 난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은 북한의 이같은 행동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정, 대북(對北) 제재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미사일 위기’를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일본은 추가 경제 제재를 언급하는 등 대북 압박에 나섰다.

유엔은 6일(한국시간)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긴급 의제로 채택하고 결의안 채택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나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10분동안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했다.

노 대통령은 통화에서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의 방미와 이달 예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 9월 한·미정상회담 등 양국간의 주요 협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양국 관계자들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9월에 (노 대통령과) 아주 좋은 정상 회담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이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대북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곧바로 대북 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보리 결의안 대신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北,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조만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군과 정부 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5일 오전 5시께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기지에서 발사된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2차 발사되는 미사일도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번째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분위기를 더욱 가중시켜 사태가 수습하기 힘든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미국 NBC뉴스는 5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또 다른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이 최종 조립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크라며 추가 발사설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대 주변지역에서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올 수능시험 11월16일

교육과정평가원 ‘2007학년도 시행계획’

“EBS강의 연계…난이도 작년 수준”

200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은 11월16일 실시되고 작년처럼 쉽게 출제되며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내용이 상당 부분 나올 전망이다. 수능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9일부터 9월 13일(토·일 제외)까지 이뤄지며 성적은 12월13일 통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갑정)은 이런 내용의 ‘2007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7일자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정 평가원장은 “올해 수능시험 문제도 작년처럼 쉽게 낼 것”이라며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들이라면 잘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하고 전체적으로 작년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토록 하겠다”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

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뒤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영역별로 언어와 외국어(영어)는 예전처럼 출제범위를 특정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고 수리 ‘가’형은 수학Ⅰ에서 12문항이, 수학Ⅱ에서 13문항이 각각 출제된다.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이 나온다.

사회탐구영역은 윤리와 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등 11개 과목 중 최대 4개 과목을, 과학탐구영역에서도 최대 4개 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수능성적표에는 작년처럼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만 기재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실당 수험생수를 28명 이하로 했고 시험실당 감독관도 2명(단 탐구영역은 3명)으로 해서 교시별로 교체기로 했다.

가급적 같은 학교 학생이 동일 시험장내 전후나 좌우 좌석에 배치되지 않도록 수험번호를 부여하고 동일 시험장 및 시험실에 같은 학교 출신 응시자가 몰리지 않게 한다.

특히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 시험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 부정행위로 간주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시 필적감정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렌 등 통신장비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장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 등이 금지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하반기 경제정책 경기살리기 총력

정부가 하반기에 88조8천억원의 재정을 차질없이 투입하고 기업 및 건설 투자를 활성화해 경기 살리기에 나선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55개 비과세·감면 조치중 10개를 우선 연장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이에 따라 무주택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등의 폐지 시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며 주택 거래세 인하가 추진된다. /이종태기자 jilee@

월드컵 스코어 보드 (종결중)
프랑스 1 : 0 포르투갈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6월 수상자 최희동 씨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중 매월 최우수작품을 선정, 시상하는 ‘광주일보 은펜상’ 2006년 6월 수상자로 최희동(51·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씨가 선정됐습니다.

최 사무총장은 6월 6일자 ‘자살골에 환호하지 말라’는 기고문을 통해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시·도지사 선거 등에서 승리했지만 지나치게 환호하지 말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영입, 새물결 태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 사무총장에게는 부상으로 광주일보 마크가 새겨진 은축 만년필을 드립니다.

